

마한시대 초대형 옹관 복원과정 직접 보세요

나주박물관 '보이는 수장고'
복암리 출토 195cm 높이 옹관
28일까지 복원과정 공개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을 배경으로 드넓게 펼쳐진 나주평야는 고대시대부터 지배 세력의 중요한 터전이었다. 다시면 복암리 일대에 자리한 고분에서 고대 지배세력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유물들이 출토됐다.

여러 유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옹관이다. 항아리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독널 또는 독무덤이라고 불린다. 영산강 유역에서 발굴된 초대형 무덤시설인 옹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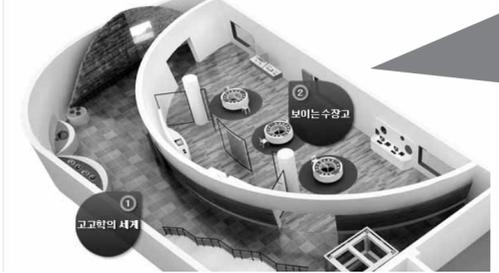
옹관의 복원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 재탄생 과정을 관람하는 것은 역사와 고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나주박물관은 '문화재 복원' 작업의 전 과정을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개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28일까지 제2전시실 '보이는 수장고'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문화재 보호에서 문화재 활용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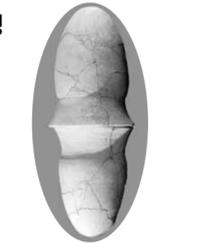
이번에 공개되는 문화재는 나주 복암리 3호분에서 출토된 대형 옹관 1조다. 무덤의 내부시설로는 특이하게 영산강 유역에서 초대형으로 발전한 탓에 이 지역에 머

■ 나주박물관 제2전시실



■ 직접 볼 수 있는 옹관 복원 과정

- 1. 깨진 조각 위치 찾아내기
- 2. 순서대로 조각에 약품 발라 붙이기
- 3. 조각 덩어리 세운 뒤 몸통 쌓기
- 4. 바닥 뚜껑 형태로 만든 뒤 채색



완성된 옹관의 추정 모습

물렀던 세력들은 자체적인 지배체제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곽은경 학예연구사는 "학계에서는 복암리 3호분은 5세기 나주에 있는 마한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고분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5세기 후반 무렵, 원래 백제 세력이 이곳으로 왔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한 게 아니라 나주지역에 머물던 마한세력에 의해 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곽 학예사의 말로 추정해보면 이곳에 자리를 잡았던 세력은 마한일 가능성이 있다. 백제에 복속했던 세력이라면 "무덤의 내부 시설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옹관"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오는 28일까지 '보이는 수장고'에서 옹관의 복원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속 연구원 3명과 문화재 전문 수리업체 3명 등 모두 6명이 참여하고 있다. 곽 학예사는 "이 달 말까지 1점을 작업하는데 높이가 다 맞춰지면 높이 195cm, 길이 110cm의 대형 옹관이 복원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복원작업은 정교한 퍼즐 맞추기와 다름없다. 모두 40여 개가 넘는 조각으로 분리돼 출토된 탓에 각 조각의 위치를 찾고 조각 사이를 접착제로 접합해야 형체가 완성된다.

대부분 땅속에서 나온 문화재들은 오랫동안 흙 속에 묻혀 있던 관계로 깨지거나 조각만 남아 있다.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복원작업이 문화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인 까닭은 그 때문이다.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이와 같은 복원 작업 공개가 가능한 것은 개관 당시부터 수장고와 소장품 정리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장품 정리과정도 실시간 관람할 수 있도록 '보이는 소장품 정리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국립나주박물관 관계자는 "땅속에서 나온 문화재가 박물관에 들어온 이후 이루어지는 분류, 등록, 번호부여, 관찰서술, 사진촬영, 보존처리 등 모든 작업 과정을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번 복원 행사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고흥의 마한 유적 학술간담회 내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지난해 10월 개관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가마터인 사적 제519호 운대리 가마터에 자리잡은 박물관이다. 고흥의 유구한 역사와 백토 분장의 아름다운 분청도자문화가 응결된 곳이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제2회 학술간담회를 22일 오후 2시 30분 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고흥의 마한·가야 유적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추진됐던 조사 성과와 향후 연구 과제 발표를 통해 고대사에서 차지하는 고흥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자리다.

이날 학술간담회에는 이동희 교수(인제대 인문문화융합학부)가 '고흥 지역 가야 관련 유적, 유물의 검토와 향후 조사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문안식 소장(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과 윤정국 실장(고대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이 각각 '마한·가야 등의 해상세력과 연결되는 고흥의 위치'와 '고흥 마한·가야 관련 유적의 조사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61-830-566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극계 '미투' 이번엔 오태석

여성 연출가·배우, 성추행 피해사실 폭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의 성추행 파문으로 촉발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거센 가운데 이번에는 원로 극작가이자 연출가 오태석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에대 극작과를 졸업한 연극연출가 황이선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02년 학교에서 '극단을 운영하는 교수님'으로부터 겪은 일을 폭로했다.

황이선 연출가는 "연습이 많아질수록 밥자리, 술자리가 잦아졌다. 약속이나 한 듯이 (부학회장이던) 내가 옆에 앉아야 했다"며 손부터 시작해 허벅지, 팔뚝 살 등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황 연출가는 또 해당 교수가 2003년 2학기에는 학교에서 남산으로 가던 차 안에서 무릎담요 속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해당 교수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름만 들으면 누

군지 아는 연극계 대가', '극단을 운영 하는 교수님' 등의 표현으로 해당 인물을 암시했다.

황 연출가에 앞서 극단 목화 출신의 배우 B씨 역시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또 공연이 끝날 때마다 행운 가득한 대학로의 그 갈비집 상 위에서는 핑크빛 삼겹살이 불판 위에 춤을 추고 상 아래에서는 나와 당신의 허벅지, 사타구니를 움켜잡고, 꼬집고, 주무르던 축축한 선생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죠. 소리를 지를 수도, 뿌리칠 수도 없었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라고 적었다.

연출가 오태석씨는 이윤택 연출과 함께 '연극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로 극단 '목화'를 창단, '태'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50여년간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연합뉴스

광주 풍류 삼매경 '죽선방' 공연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풍류회 '죽선방'의 공연이 오는 22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국악전수관이 열고 있는 목요상설 국악한마당 초청 무대다.

풍류회 죽선방은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연주인들로 구성된 풍류회로 전통 풍류음악을 보존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번 무대는 오랜 시간 전승돼 온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대중들에게 소개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무대의 테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 성악 장르인 '가곡'이다. 무대는 가곡과 가곡에서 파생된 기악곡으로 꾸며진다.

'사관풍류와 광주 풍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먼저, 향피리를 중심으로 편성되는 사관풍류인 관악합주 '영풍년'·'염양춘'과 현악합주 '수룡음'이 연주된다. 이어 여창가곡 '이수대암'·'계면두기'를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 무대는 광주향제출풍류 중 '뒷풍류'로 장식된다. 무료 관람. 문의 062-350-455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풍류회 '죽선방'의 공연 모습.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